

“파인텍지회 굴뚝농성 해결” 사회원으로 148명 비상시국선언

“농성 408일 넘기면 문재인 정부가 내려와야” ...당사자 김세권 스타플렉스회장 모든 대화 거부

한국사회 각계각층 원로들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굴뚝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회원로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야만의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과 문재인 정부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사회원로들은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이 408일을 넘기면 내



려와야 할 사람은 스타플렉스 김세권과 문재인 정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스타플렉스(파인텍) 고공농성-무기한 단식 해결 촉구 사회원로모임〉은 12월 17일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 ‘스타플렉스 김세권 규탄·문재인 정부 문제 해결 촉구 사회원로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상시국 선언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김중배 전 MBC 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명진 스님, 문규현 신부, 단병호 평등사회노동교육원장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예술계 등 각계각층 원로 14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농성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사회원로들이 나섰다”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파인텍지회 굴뚝 농성을 끝내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고령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호통쳤다. 백기완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굴뚝에서 농성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갔는지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스타플렉스 김세권이 철용성을 쌓고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원로들이 보여준 힘을 받아 안아 박준호·홍기탁 두 조합원 동지가 승리하고 내려오도록 금속노조는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단식 8일째를 맞은 차광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은 “굴뚝 농성이 400일을 넘었지만 아직 김세권 얼굴 한 번 못 봤다.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아직도 김세권을 만날 수조차 없다”라며 분노했다.

굴뚝 농성 401일을 맞은 박준호·홍기탁 조합원은 전화 연결을 통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두 조합원은 “갈수록 힘든 삶을 해결해가 위해 노동자는 싸울 수밖에 없다. 사회원로와 많은 분의 연대와 지지에 힘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박준호·홍기탁 조합원이 ‘고용과 지회 인정, 단협’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며 75m 굴뚝에 오른 지 401일이 지났다. 스타플렉스 김세권 회장은 ‘파인텍을 세워 고용 등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깨버린 채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차광호 지회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2월 24일은 2015년 차광호 지회장이 세운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408일을 넘어선 날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담당자 구속해야”

편파판결·부당 산재 불승인 울산지법·공단지사 규탄대회... “울산지사, 자본 편들기 조사·판정 백화점”

“구속해야 할 사람은 부실한 재해조사와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담당자다.”

금속노조가 12월 14일 울산시 남구 옥동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연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공단과 법원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죄를 뒤집어씌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세민 실장과 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은 지난해 9월 6일 부실한 재해조사로 30여 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공단 울산지사에 항의 방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 발표 공식 2017년 산재 사망 노동자는 1957명이다. 하루에 다섯 명 넘게 죽고, 4시간 48분마다 한 명이 죽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바로 잡으려 투쟁한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의 구속은 금속노조와 위원장인 저의 구속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은 노동안전 활동가의 발에 사슬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다”라고 규탄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울산지역 건강권 대책위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24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도중에 현대차에서 근골격계 현장 조사 동영상 촬영을 공단이 하지 않고 사측이 촬영하는 부당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공단의 직무유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고, 공단은 부당행위를 인정했다.

현미향 활동가는 “박세민 실장과 활동가들은 울산지사 횡포를 바로잡으려다 구속됐다. 재해노동자의 가족을 불러다 협박하는 등 공단 울산지사의 횡포는 여전하다”라고 규탄했다.

이태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인부장은 박세민 실장이 뒤집어쓴 퇴거불응,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죄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태진 부장은 “공단은 민원인으로서 지시를 찾아간 노조 간부 열 명을 스무 명이 넘는 직원을 동원해 겁박했다. 마찰 과정에서 깨진 화분이 80만 원이었는데,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을 불법 촬영하다 다친 공단 직원은 딱 한 번 병원에 갔다. 이게 특수상해로 둔갑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저지른 30여 건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진 부지부장은 ▲사업주의 허위 진술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반박 기회를 묵살하고, 허위 진술을 인정한 점 ▲현장 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내용을 고의 축소하고 잘못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해조사시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해 판단한 점 ▲소음 노출 등 작업환경 측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확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부족한 자료만으로 편파 판정한 점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한 조사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점 ▲직업성 암 현재 결정 과정에서 고의 2년 이상 장기 지연한 점 등을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재해노동자에게 일방 불리한 조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사법부는 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며 “철저한 노조 혐오에 기반한 판사 개인의 추측과 판단으로 내린 왜곡 편파 판결이다”라고 성토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와 박세민 실장은 공단의 잘못된 산재 조사와 산재 불승인을 바로 잡으려 했다. 노조는 반노동자 판결을 일삼은 울산지법과 공단에 투쟁을 선포하고,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사법적 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